

자영업자 폐업 못하고 빚만 쌓인다

올 2분기 기준 광주·전남 자영업자 16만3000명 빚으로 버텨 한 명당 대출 2억원 넘고 전체 40조원 육박...가파른 증가율 금리 0.5% 오르면 이자 부담 1924억원...한 명당 113만원

빚을 낸 광주·전남 자영업자 수가 지난 상반기 기준 16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직전보다 4만5000명(3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도소매·숙박음식업에 몰려있어 대출 증가율도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1일 김재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지역 자영업자 가운데 빚을 낸 차주는 광주 7만3000명·전남 9만명 등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11만8000명)보다 4만5000명(38.2%) 급증한 수치다. 빚을 진 광주·전남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12만1000명에서 14만1000명(2분기)→14만5000명(3분기)→15만2000명(4분기)→16만명(올해 1분기)→16만3000명(2분기)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지역 자영업자 한 명당 안고 있는 대출잔액은 광주 2억5000만원·전남 2억1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자영업

자 대출 총 잔액은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2017년 23조6000억원이었던 지역 대출잔액은 2018년 27조5000억원, 2019년 29조1000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3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8% 급증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은 전년보다 광주 17.8%·전남 14.5% 증가했다.

광주 증가율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은 경기(16.4%)에 이어 9개 도(道)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대출 급증은 방역 지침 강도가 매출에 곧바로 반영되는 전통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비중은 광주 47.7%·전남 56.1% (2019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전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중은 제주(59.7%), 강원(58.2%)에 이어 15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광주 6.5%·전남 7.8%에 불과하다.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따지면 광주(20.1%)는 울산

(2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울산과 광주에 이어 경북(18.9%), 경기(18.1%), 전남(1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0.5%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연간 192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사람당 113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차주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상위권을 나타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취약차주 비중은 광주 6.7%·전남 9.1%로 집계됐다.

전남 비중은 강원(10.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았고, 광주(6.7%)는 부산(7.0%)에 이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에 드는 저소득,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말한다.

김재영 과장은 "폐업 비용 부담 등으로 원활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점 등 전통 서비스업 위주로 창업이 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한 재정립 등 재기를 지원하고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량대출을 제공해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뤄지도록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공익형 상품 '명이량이 적금' 출시

광주은행이 적금을 들수록 반려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공익형 비대면'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형 ESG 상품인 비대면 전용 '명이량이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종이통장이 아닌 인터넷 뱅킹·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로 1년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내년 2월28일까지 판매하며, 출시 기념으로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자 1명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광주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가치보듬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앞서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최대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주는 이른바 공익형 ESG 대출상품 서포트를 출시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 조

달한 자금으로 친환경 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앞서 내놓은 '명이량이 신용체크카드'는 지난 7월 가입 1만좌를 돌파하며, 사단법인 가치보듬에 수익금 일부인 300만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간식비, 질병 예방·치료비 등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려동물 가정에 호응을 얻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최근 ESG 경영과 착한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이 적금이 기업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ESG 경영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1월 수출 32% 증가... 600억 달러 첫 돌파

1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월간 기준 첫 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중전 최고치는 지난 9월의 559억2000만 달러(확정치)로, 2개월 만에 45억2000만 달러를 끌어 올리며 기록을 경신했다. 또 2013년 10월 월간 수출액 5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래 8년1개월 만에 600억 달러대로 도약했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3개월 연속 증가는 2000년 이후 4번째로 긴 기간이다. 이와 동시에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43.6% 증가한 573억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0억9000만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출을 보면 15대 주요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이 우려됐던 반도체는 오히려 40.1% 증가하며 120억4000만 달러 수출액을 달성, 전방 산업 경기 회복세에 석유화학과 일반기계도 각각 63%와 11.6% 증가한 48억4000만 달러, 47억4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외 석유제품,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섬유, 가전 등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주력 수출 품목 외에 물론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도 모두 역대 11월 수출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수출 실적을 뒷받쳤다.

다만 차 부품과 바이오헬스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차 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바이오헬스는 역대 4위의 수출액에도 작년 11월(역대 3위 실적)의 높은 저지효과가 원인으로 각각 지적된다.

산업부는 11월 수출 증가율이 '13개월 연속 플러스'의 시작점인 작년 11월 수출과 비교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외국인 대량 매수에 코스피 2.14% 올라 2900선 눈 앞

코스피가 1일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2% 넘게 상승하며 전일 급락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0.71포인트(2.14%) 오른 2899.72에 마감, 7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11포인트(0.74%) 높은 2860.12로 출발해 대체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장중 한때 2905.74까지 오르는 등 2900대 회복도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전날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كرون' 확산 우려에 2.42%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839.01로 마감한 지수는 이날 반발 매수세 유입에 급등했다.

이날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08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99.72 (+60.71)
↑ 코스닥	977.15 (+11.52)
↑ 금리 (국고채 3년)	1.813 (+0.014)
↓ 환율 (USD)	1179.20 (-8.70)



현대차·기아 'R&D 협력사 테크데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을 통한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1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1 R&D 협력사 테크데이(Tech Day)'를 개최했다. <현대차·기아 제공>

삼성 연말 이웃사랑성금

500억원 사회복지모금회 기탁

삼성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성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16개 계열사가 기금 출연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회사 기금 외에도 수만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은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7200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은 또 유니세프, 푸른나무재단 등 8개 비영리기구(NGO)와 함께 제작한 2022년도 달력 31만개를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NGO 활동을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새해 달력을 자체 제작하지 않고 NGO와 제휴해 만든 달력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라 CSR 활동이 사회에 더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기용 기자 pbboxe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